



광남일보



 <p>광주상-조선대, 유학생 정착 협력 산학협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p>	 <p>'미식도시 장성' 거점시설 조성 순항 김한중 군수 "창업인재·일자리 창출 기대"</p>	 <p>곡성 '고향사랑기부제' 지역소멸 극복 제시 군, '소이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p>	 <p>삼중읍성 유방암 정밀치료 새 지평 민중준 화산전남대병원 교수팀 연구 착수</p>
---	---	--	---

주간 제7921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음력7월 18일)

GGM 캐스퍼 20만대 생산...경제 '활력'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회사 설립 6년 만의 쾌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완성차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노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상생 협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노사 관계 회복으로 '35만대 달성'이라는 성공적인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8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캐스퍼 20만대 양산 기념 근무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어 GGM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GGM 윤몽현 대표이사과 임직원, 임한서 상생협회의 회장, 상생협의회 위원인 김진태 GGM 노조지회장을 비롯한 상생협의회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성과를 축하했다.

GGM은 2021년 9월 캐스퍼 제1호차 양산을 시작해 2023년 10월 10만대를 달성했고, 2024년 7월부터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을 본격 생산하는 등 4년여 만에 누적 생산 20만대를 기록했다.

GGM의 20만대 달성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캐스퍼(인스타)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캐스퍼 20만대 양산 기념 근무유공자 표창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년만의 쾌거...일자리 창출·경제 파급효과 등 확대 66개국에 진출...글로벌 완성차 생산공장 발판 마련 노사 갈등에 '상생 협약' 흔들... "35만대 달성 협력"

는 합리적 가격, 실용적 디자인, 친환경 기준 충족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66개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메이드 인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GGM은 설립 당시부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재까지 682명이 고용돼 있으며, 향후 2000명 규모의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완성차 생산을 기반으로 지역 협력 업체 매출 증대, 연관 산업 활성화 등 파급 효과도 커지고 있다.

특히 GGM이 앞으로 15만대를 추가 생산하면 누적 35만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35만대 생산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닌 노사 관계와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하지만 GGM 노조가 출범한 뒤 지난해

말 임금 협상을 둘러싼 파업이 발생했고, 이후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상생 협약'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를 낳고 있다.

2019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결실로 출범한 GGM은 당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협정서에 무노조·무파업, 임금 인상을 제한 등 노사 간 특수한 합의를 담았다. 노사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매년 소비자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 조건과 작업 환경은 상생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조속한 노사 관계 회복으로 성공적인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李 대통령 "야당은 성과...여당은 국정 성공" 장동혁 대표, '테마 있는 협의체' 제안에 화답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만나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이날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낮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얘기를 나눴다. 이어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영수 회담에서는 '정치 복원'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획기적인 청년고용대책, 주시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인 민생 정책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마루동 탄약고' 이전 재개...지역발전 호기

내년 국비 15억 반영 추진...군공항 이전 문제로 부류
강기정 시장, 대통령에 건의...지역 국회의원도 협력

광주시민의 숙원인 '마루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재개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마루동 탄약고 이전 공사비' 15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마루동 탄약고 이전사업'은 2005년 이전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약 3262억원 중 2681억원을 보상

비 및 공사비 일부로 투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3년 하반기 군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잠정 보류된 상태다.

도심 한기운에 위치한 마루동 탄약고는 오랜 기간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안전 사고 우려,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개발 제약, 아파트 진입로 연결 곤란 등 각종 민원(환매권, 군사보

호구역조정 소송 등 2100여명 민원)이 제기되며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8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탄약고 이전 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안규백 국방부장관 등 실무 장관들을 만나 2026년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장 위원장을 비롯한 안도걸, 박균택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년 정부에

산안 반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마루동 탄약고 이전사업'은 단순 민원 해소를 넘어, 광주지역 도시공간 재편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방부와 협력해 마루동 탄약고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회 활동 등을 통해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마루동 탄약고 이전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며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을 계기로 마루동 탄약고 이전사업 재개와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 김대중 평화회의
KIM DAE JUNG PEACE FORUM 2025

<p>기조 강연</p>  <p>제임스 로빈슨 2024 노벨평화상 수상자 미국 시카고대 교수</p>	<p>특별 강연</p>  <p>김정호 카이스트 교수</p>	<p>세션 1</p>  <p>존 아이젠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국제문제연구원 석좌교수</p>	<p>세션 2</p>  <p>장원평 중국 산둥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석좌교수</p>	<p>세션 3</p>  <p>키미야 타다시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p>	<p>세션 4</p>  <p>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p>
---	---	---	---	--	--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상생평화의 새로운비전 PEACE FORUM 2025
A New Vision of Co-existence Peace for the World and the Korean Peninsula

<p>토론회 / 김대중 대통령을 알린다</p>  <p>박지원 국회의원</p>	<p>평화콘서트 / 오늘의 평화, 이따갈 평화!</p>  <p>김미화 방송인</p>	<p>김현중</p>  <p>김현중 메디치미디어 대표</p>	<p>안성훈</p>  <p>안성훈</p>	<p>코요태</p>  <p>코요태</p>
---	--	---	---	---

국제학술회의: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 9월 24-26일 (수-금)
 평화콘서트: 목포 하당 평화광장 / 9월 24일 (수) 19시
 토론회: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 9월 25일 (목) 17시 30분
 주최: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주관: 김대중평화센터 *문의전화: 02-324-7972